왼쪽부터 · 구성연 〈팝콘〉 2007
〈유클리드의 산책전〉에 출품한
이중근의 작품
황혜선 〈흘리지 못한 눈물〉
2007
성낙희 〈클린치〉 2007

간과 개인의 신화('Culture+Culture', 'Digi-
l+Analogue', '관찰자+타자')를 담아내는 자
자의 주체적인 자아, 담고 있는 자로서의 주체
인 화자인 것이다. 근대가 종말을 고한 이후 여
히 세계를 둘러치고 있는 근대적 매트릭스의
면 위를 화가 마그리트와 걸으며 그 매트릭스
를 간섭하고 욕망하며 기록하는 실험적인 다큐멘
터리.

그렇다면 이 전시의 미덕은 진정 무엇일까. 그
은 동시대예술, 예술작품을 분명하게 정리한
눔엘북의 성격을 집어 던지고 있다는 점이며,
통하는 수많은 경로 사이의 접점으로서 예술가
'태도'를 상정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여기
예술가들은 잃어버린 내적 대상에 대한 슬픔
표상(멜랑콜리아)인 르네상스 거장 뒤러 식의
술가를 넘어선다. 멜랑콜릭한 증후를 떨치고
을 바깥과의 치열한 관계들의 집합 속에서 잃
버린 내적 대상의 사본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
원본의 출처, 원본이 생산되는 힘을 제시하려
적극적 태도로서의 예술가가 아닐까.

김주원 · 유영국미술문화재단 학예실장

황혜선展
9.12~10.2 이화익갤러리

황혜선의 이번 개인전은 의외가 아니다. 황혜선표
언어인 유리, 보석은 독특할 게 없다. 또한 1
전시장을 주도하는 영상작품은 작가의 개인적
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지난해 발표된 영상 작
견주어 새로운 건 아니다. 생각이 여기에 미
보면 그의 작품에서 늘 의외를 바라는 건 필
고정된 심사였음을 고백해야겠다. 찬찬히 훑
보면 그의 작품이 의외의 것을 보여준 적은 없
었고 지금도 버젓하다.

그의 작품은 늘 삶의 자장 안에 있었고 이번 전
시도 그러하다. 그 삶은 황혜선의 개인적 삶이다.
그 언어는 공적 공간을 파고들지 않는다. 너무나
개인적이다. 그러나 그 개인적 언어가 발휘하는
힘은 결코 사사롭지 않다. 파롤이 랑그가 되는, 개
인적 서사가 사회적 담론이 되는, 아니 거기까지
아니더라도 개인적인 언어를 이토록 섬세하게 구
사하는 자신만의 언어를 가진 작가는 필자의 정보
에 기대면 몇 안 된다. 짧은 지면에 이를 일일이 나
열하기는 힘들 터. 이번 전시에서 황혜선은 여태
해온 유리 작업을 변용한다. 이전 작품들이 유리
판을 여러 겹 덧대 그린 것이지만 이번 개인전은
한 장의 유리다. 흰색 종이를 유리 뒷면에 붙여 깊
이를 만든 후에 실크스크린으로 풍경을 그려넣었
다. 언뜻보면 사물의 나열, 의식의 나열로 해석될
수 있지만 풍경이 동떨어져 있진 않다. 풍경이 서
로 옅게 겹치거나 흐릿하게 채색된 정물은 나열이
라는 말보다 겹침이라고 해야 옳다. 의식이나 의
미의 겹을 얘기하듯 도드라지는 것이 전봇대가 되
다가도 색이 칠해진 화면 전경이나 중경의 초콜릿
이나 나무가 되기도 한다. 경계가 터진 풍경들, 무
채색의 유리면, 듬성듬성한 오브제와 칠해진 듯
채색이 옅은 색감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수많
은 의식 밖의 풍경과 사물의 본질, 즉 흐물흐물한
의식의 모호성을 돋우는 형식적 측면이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인 영상작품 역시 의식의 중
층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평면작품과 같은 맥락
에 위치한다. 찻잔에 가득 차를 따르지만 이미 가
득한 상태로만 보여지는 〈Being there〉는 소통의
극락, 존재의 최대치를 상징하고, 뾰족 구두 한 짝
이 불규칙적으로 움직이는 〈모든 기억의 그것처
럼〉도 개인적 정서를 보편적 언어로 드러내는 작
품이다. 기억은 구두처럼 불규칙하게 드러나지만
기억을 할 때 움직이는 우리 몸의 무의식적 행태
이기도 하다. 이처럼 그의 시각 언어는 의식과 무
의식의 어정쩡한 형태, 의식의 언저리를 다룬다.
그것은 의식 밖에 잠시 머문다는 점에서 의외이긴
하다.

정형탁 · 갤러리벨벳 디렉터

성낙희展
9.6~10.6 원앤제이갤러리

캔버스에 플래시 페인트로 그려진 이 그림은 너
무나 회화적이다. 그 무엇으로 환원되거나 특정
형태에 안주하지 않고 그저 그림을 그림으로 밀
고 나갈 뿐이다. 오로지 붓질과 물감, 색이 윤곽을
짓고 채우고 영역을 만들면서 증식되다가 홀연
멈춰있다. 물감들은 곱게 발려지다가 순간 흐르
고 튕기고 그러다가 다시 죽죽 지나간다. 직선이
아닌 곡선들, 유기적인 선이 겹겹이 모여있는 이
촘촘한 조화나 관계는 여러 층위에서 조우한다.
보는 이들의 눈과 마음을 캔버스 안으로 흡입하
는 장치다.

이 사각형은 외부를 지시하거나 존재론적 조건
을 명시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저 홀연히 화면/평
면 여기저기, 내부와 외부를 마냥 유랑한다. 일정
한 면적을 지닌 붓질과 붓이 지나간 선들이 서로
에게 끌리고 이어지고 만나서 우연히, 혹은 불가
피하게 생겨난 영역, 자취를 보여줄 뿐이다. 무수
한 관계의 망이 직조되어 이룬 독특한 이미지들
이다. 그것은 서사나 형상, 즉물적인 증거가 아닌
자리에서 서식하는 식물같이 자라나는 회화들이
다. 다시 회화가 흘러넘쳐도 회화적인 그림을 만
나기 어려운 시대에 이 그림은 회화가 무엇인지
를 새삼 보여준다.

왼쪽부터 · 학고재에서 열린 〈이수영전〉 전시장 광경
일본 플러스갤러리에서 열린 〈정정주전〉 전시장 광경
공근혜갤러리에서 열린 〈민병헌전〉 전시장 광경
박병춘 〈채집된 산수〉 2007

그림 앞에 서면 전자음악 혹은 마치 랩이나 이런저런 음향들이 증폭되어 울려나는 듯도 하다. 그 음은 시각과 함께 진동한다. 눈은 즐겁다. 유쾌하다. 망막은 정처없이 화면의 안과 겉을 헤맨다. 깊이 있는 공간으로 빨려들다가 이내 밋밋한 평면, 표면으로 수렴되고 그러다가 다시 몇 겹으로 층층이 겹쳐 올라오는 화면의 무한하고 광활한 '매트릭스'에 걸려든다. 수없이 겹쳐 올라오는 이 레이어는 무한한, 초현실적인 공간감을 부여하고 시간을 체득시킨다. 그림을 보는 관자들은 여러 층위의 시공간을 경험한다. 그것은 주어진 화면의 평면성을 단순하게 환원하는 것도 아니고 순진하게 원근법적 공간으로 뒷걸음질치는 것도 아니다. 그 사이에서 그 모두를 끌어안고 그 모두를 밀쳐내면서 만들어내는 기이한 공간이다. 사이버 시대의 공간의식일 수도 있고 디지털시각문화 속에서 만나는 공간의 영향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성낙희의 인간적인 체취와 제스처가 물씬거리는 그림 앞에서 묘한 디지털 미감을 접한다.

붓질의 여러 형태감이 만드는 단위들이 어우러져 레고게임처럼 맞물리고 흩어져 긴장 있게 조율된 이 화면은 붓질, 선, 색, 면들이 모여 이룬 것이다. 그 기본적인 조형요소들은 언어나 단어, 마음의 결, 사고의 흔적, 감정의 편린, 모든 것의 한 단위로 서식한다. 그 단위들이 모이고 흩어지고 어울리고 층층히 겹쳐서 무한한 시간의 결과 시각의 깊이와 눈과 마음을 흡수하는 공간을 만든다. 작가는 회화의 이 기본요소들을 가지고 모종의 판타지를 만든다. 그 판타지는 열락적이고 장식적이다. 기본적인 비주얼컨셉트로 허구를 쌓는 일, 가상과 상상을 구축하는 이 그림은 다분히 자폐적이고 고립되어 있기도 하다.

박영택 · 경기대 교수

이수영展

10.3~10.9 학고재

저마다 떠들썩한 소리를 내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미디어와 이념의 껍질을 휘감은 채 등장하는 화려한 회화들 속에서 이수영의 작품은 조용하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파리로 떠났던 작가는 무려 15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서야 우리 곁에 보따리를 풀었다. 전시장을 둘러싼 그림들은 하나하나가 우주다. 무수히 박혀있는 은하수의 별처럼, 혹은 밤하늘의 불꽃놀이처럼 끝없이 휘돌아 펼쳐진 점들. 그러나 예민한 관람자라면 이 우주가 그저 평온한 공간이 아님을 알아챌 것이다. 화면은 주름과 울퉁불퉁한 굴곡을 안고 있다. 이런 배경에 '얹힌' 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면 깊숙한 곳에 자리하는 존재감을 가진다. 왜일까? 여기서 작가가 우리에게 숨겨놓은 제작의 과정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낸다.

작가는 커다란 비닐에 점을 찍는 것으로 시작한다. 아크릴 물감과 비닐 미디엄을 섞은 되직한 안료는 점들의 도드라진 질감을 보장한다. 하루에 스무 개, 혹은 오십 개. 이렇듯 날마다 찍힌 점들이 비닐 가득 펼쳐지면 이번엔 물감을 덮을 차례다. 대개의 회화가 바탕칠을 하고 형상을 올린다면 이수영은 그 순서를 거꾸로 가는 셈이다.

색면을 만드는 과정 또한 만만치 않다. 작품에 따라서는 열 번이나 서로 다른 색면들이 덧칠된다. 비닐 미디엄으로 농도를 조절해가며 덧씌워진 칠은 먼저 만든 색면이 채 마르기 전에 다른 농도의 색면을 그 위에 쌓아올림으로써 색들이 섞이거나 반투명하게 밑색이 드러나는 효과를 노린다. 이렇듯 비닐 위에 켜켜이 쌓인 색면들은 최종적으로 캔버스에 전사된다. 비닐이 캔버스에 붙었다 떨어지며 생기는 자국들과 비닐의 주름이 캔버스에 각인된다. 마치 판화를 찍어내듯 화두가 바뀌는 것도 이때이다.

작가는 그림이 스스로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그저 즐겁게 동참할 뿐이다. 점의 배열만이 작가의 주관일 뿐, 나머지 작업들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우연의 몫이다. 캔버스에 담긴 제작의 과정은 이미지가 작품을 결정하는 종래의 회화와 달리 바탕이 이미지를 결정하는 역설을 제공한다. 전시 제목인 '빈 중심'이 말하듯 이수영은 자신에게 노동이자 유희인 그림만들기를 통해 스스로를 비우는 법을 배워가는 듯하다. 메시지와 주관이 범람하는 그림들 속에서 이수영의 작품이 신선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지은 · 명지대 교수

정정주展

9.15~10.14 일본 플러스갤러리
10.19~11.7 대안공간 풀

일본 나고야 플러스갤러리에서 정정주가 만들어낸 지각 장(場)의 핵심은 침묵과 시선의 융합이다. 일상에서 흔히 '침묵'과 '시선'이 결합하면 그렇듯이, 정정주가 건축모형과 그 모형의 내부를 전시공간 외벽에 투사한 영상은 작고 낡은 목조 건물 갤러리 2층을 매우 은밀하면서도 긴장된 공간으로 바꿔놓았다. 모형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 카메라를 통해 무성(無聲)으로 재현되고 프로젝터를 통해 확대된 '모형-영상 공간'은 실제 우리 생활의 비가시적 측면을 가시성의 장으로 포섭해놓은 것과 같다.

이를테면 대도시에 사는 우리가 자기 집 창문가에 서서 이웃집의 은밀한 사생활이라든가 도시 거리를 숨죽인 채 훔쳐본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우리는 눈앞에 펼쳐지는 장면은 볼지언정 그 응